

# 한국사회의 도덕성 회복에 관한 제문제

——교육분야——

문 용 린\*

<목 차>	
I. 서 론	야에서의 대책
II. 도덕의 의미와 교육적 상황 의 분석 : 도덕성 회복이 필요 한 교육의 분야들	1. 교육속의 개인의 도덕화 2. 교육속의 집단간의 갈등조 정 능력의 고도화
1. 도덕과 도덕성 회복의 의미 2. 교육분야에서의 도덕성 회 복	3. 도덕교육의 효율화 4. 교육 유해 환경의 제거와 도덕화
III. 교육분야의 도덕적 상황 : 그 현실	5. 잠재적 교육과정의 활성 화 : 그 필요성
1. 교육속의 비도덕적 개인 2. 교육분야에서 집단간 갈등 과 긴장 : 그 사례들	V. 결론 : 잠재적 교육 과정의 활성화
3.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의 비 효율성 : 그 현실	1. 세가지 모형 2. 클버그식 모형의 적용 가 능성
IV.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분	

## I. 서 론

한국사회의 도덕적 폐폐 현상은 이제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인식이 되어 버렸다.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란, 이제 허명이 되어 버렸다. 시사 주간지인 시사저널은 다분히 도덕적 타락을 겨냥한 “한국의 세계 제 1위”라는 제목을 내걸고 실증적인 사례와 통계치를 열거하면서, 우리나라의 도덕적 폐폐와 타락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국은 이제 ‘조용한 아침의 나라’도 아니고, 1세기 전 미국의 동양학자 그리피스가 표현한 것처럼 ‘은둔의 나라’도 아니다. 아시아의 네마리 용으로 끌어올린 활

\* 서울대, 교육학

력소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그 활력소는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국가적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욕과 수치의 불명예스런 기록들을 끊임없이 분출시키고 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 주당 근로시간 세계 1위에 산업재해율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산업화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어째서 이러한 세계 기록들을 우리가 차지하게 됐는가. 지난 90년 이웃 일본은 자동차 6천만대 보유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만 1천여명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3백 40만대 보유에 1만 2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은 자동차 1만대당 36.3명의 사망자를 내 이 분야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인은 본질적으로 성급하고 절서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달렸다 하면 꽝! 부딪치며 황천으로 떠나버리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절서의식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모두가 규칙만 지키면 안전할 터인데 그저 달리기만 한다. 속도 조절도 못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줄도 모른다. 달리자! 그리고 황천으로 떠나버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자신의 목숨만 앗아가는 게 아니라 영등한 사람까지 동반자로 만든다는 사실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48%가 보행자라는 것은 애꿎은 죽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이다(물론 보행자의 과실도 많다). 결국 절서의식과 준법정신 결여는 자신뿐만 아니라 곧바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이 통계에서도 읽을 수 있다.(시사저널, 1992. 7. 9 : 24)

결국 세계 제 1의 자동차사고, 산업재해율의 기본원인이 절서와 준법, 그리고 인명경시라는 도덕적 품성의 결여라고, 이 글은 진단하고 있는 셈이다. 1992년에 우리나라 경찰청이 내놓은 「외국범죄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간사건 발생률은 세계 제 3위로 나타났다. 인구 10만명당 9.8건이 발생하는 바, 미국 41.2건, 스웨덴이 16.4건으로 1위 2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이다. 이웃 나라 일본은 1.3건에 불과하다. 성범죄가 이렇게 높아서야, 아무리 도덕적 타락에 대한 변명을 하고자 해보아야 불가항력이다.

우리나라의 도덕적 타락의 양상은 특히 젊은 청소년 층에서 두드러진다. 10대들의 범죄와 비행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흡연률이 44%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시사저널, 1992. 7. 9 : 28).

아울러 성범죄의 50% 내외를 10대 비행자가 저지르고 있으며 환각제 복용률이 9~16% 정도로 추정되어 미국의 학생 평균 복용률인 11.9%를 상회하고 있다. 비단 이런 통계치로서만 우리 젊은이들의 도덕적 타락 양상이 잡혀지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다니는 대학 캠퍼스 내에서 교수가 분명해 보이는 어른과 학생이 말다툼을 하고, 학생이 교수를 폭행한다. 40대에게 담배불을 빌리려던 10대 청소년이 전방지다고, 그 40대 어른을 구타한다. 목

욕탕이건, 주차장이건 간에 젊은이가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하고 혼자 중얼거리다 돌아서는 어른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비도덕적 행동을 목격하면서, 우리는 기성세대인 어른들의 비도덕적 행동을 목격할 때와는 다른 느낌을 갖는다. 젊은이들이 왜 저리는가?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의 청소년들이 저 지경으로 도덕적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95%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해당 연령자의 거의 98% 이상의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 청소년들은 결코 막 키워진 아이들이 아니라, 거의 다 12년 이상의 정규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다. 교육은 이들 젊은이들이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아무런 억제체의 역할을 못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교육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비행과 비도덕의 길로 들어서도록 부추겼는가?

한 사회의 도덕적 수준은 결코 그 나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공교육체제와 무관할 리가 없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렇듯 비도덕화의 표준적인 사례가 되어 버렸을까?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도덕성 회복에 관심이 있고, 특히 교육분야와 관련된 도덕성 회복에 주된 관심이 있다.

교육분야와 관련된 도덕성 회복을 토의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인 바, 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도덕성 회복과 관련된 교육의 영역과 측면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분야에서의 도덕성 회복의 모형은 무엇인가?

세째, 교육분야에서의 도덕성 회복의 구체적인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Ⅱ. 도덕의 의미와 교육적 상황의 분석 : 도덕성 회복이 필요한 교육의 분야들

교육분야에서 도덕성이 회복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꼭 따라 붙는다.

따라서 도덕성 회복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분명해져야만, 교육에서 도덕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가 분명해진다. 아울러 교육분야가 매우 넓은 삶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영역별로 회복되어야 할 도

덕성의 내역이 차별성 있게 적시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도덕성의 의미와, 이런 의미를 전제로 할 때 교육의 여러 영역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 1. 도덕과 도덕성 회복의 의미

도덕 또는 윤리라는 말 자체를 정의하는 것 자체가 윤리학의 중요한 주제의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그런 이론적 논의를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이글은 편의상 최근의 여러 도덕 및 윤리이론을 절충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W. Frankena의 입장과, 이를 토대로 심리학에서의 인지 발달론적 입장(Cognitive Developmental Approach)만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L. Kohlberg와 J. Rest의 입장은 그대로 수용하기로 한다. 이런 수용을 전제로 할 때 도덕에 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J. Rest 교수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본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 때, 이들의 행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도덕이란 바로 이럴 때에 사람들이 서로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무슨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원리이자 안내이다. 이 원리나 안내는 특정인이나 집단에 편파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 원리는 구성원 각자의 이득과 본래적 가치를 아무 차별 없이 고려하는 것이다.(Rest, 1983 : 558 ; 문용린, 1988 : 137)

이렇게 도덕을 “사람끼리 서로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행위의 원리와 안내도”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도덕성이란 그런 원리와 안내를 지키고, 고수하며, 고집하는 내재화된 심리적, 성격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하면 도덕성이란 사회구성원끼리 서로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편파적이지 않게 구성원 각자의 이득과 본래적 가치를 아무 차별없이 고려할 줄 아는 심리적, 또는 성격적인 내면화된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도덕성의 회복이라고 말할 때, 이는 다분히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잃어버리고 만 도덕성을 되찾자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과거에 있었던 모습의 도덕성을 되찾자는 뜻으로서 보다는 현재 지금 우리의 도덕수준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만족할 수준만큼 더 공고하게, 강화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제 이와같은 도덕, 도덕성, 그리고 도덕성회복의 의미를 교육분야와 관련해서 적용시켜 보자. 교육계 내부의 구성원끼리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

해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리나 행위 안내도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육계의 “도덕”이라고 볼 수 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해야 될 것과 하면 안되는 것을 판가름해 주는 원리와 행위 안내도는 무엇일까? 이것은 일반회사나 공무원 조직에서의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의 행위원리나 안내도와는 분명히 다르다. 어디 스승과 제자 사이만 그런가? 교사와 학부모 사이, 교사와 교사 사이, 교사와 교장·교감 사이,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도 다른 사회조직에서와는 다른 행위원리와 행동의 안내도가 있게 마련이다. 이렇듯 다양한 교육계 내부 구성원 간에는 도덕 즉 그 구성원들이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을 구분해 주는 행위 원리나 안내도가 있기 마련이다. 이런 원리나 안내도가 아예 없는 테도 있을 것이고, 아주 분명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계에는 과연 이런 행위 원리와 안내도로서의 도덕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의 개념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도덕성이란 교육계 내부의 구성원인 교사나 학부모, 학생, 교장과 교감들이 얼마나 행위원리나 안내도를 심리적인 특성으로서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덕성은 곧 도덕적 원리나 규칙의 내면화 정도를 가리킨다. 따라서 교사나 교장, 교감이 도덕성 수준을 높게 지니고 있을 때, 그런 교육계는 더 도덕적일게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인수준에서의 도덕성도 문제이지만, 그 집단 전체가 갖는 도덕적 풍토도 문제일 수가 있다. 즉 아무리 개인 수준별로는 도덕성이 높다고 하여도 집단 그 자체가 전제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구조적인 경직성을 가지게 되면, 그런 개인의 높은 도덕성이 표현이 안되고, 발휘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교육분야에서의 도덕성 회복이란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교육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수준의 개인들을 그 자체로서 도덕화 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게 되는 문화풍토를 도덕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전자가 개인수준의 도덕화를 의미한다면, 후자는 교육계 자체 혹은 학교라는 기관자체의 도덕적 운영구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교육분야에서의 도덕성 회복

도덕성 회복과 관련해서 교육분야와 관련된 측면은 대체로 세 가지이다. 하나는 교육분야를 구성하는 다양한 수준의 개인들의 도덕적 작성과 품성의 도야이며, 두번째는 교육체의 구조적 풍토 자체를 도덕화 시키는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도덕적 품성을 갖춘 어린이, 청소년을 길러서 사회에 투입시켜야 할 국가적 분업을 잘 성취해내야 한다는 측면이다. 앞의 두 측면은 교육이의의 어느 집단이나 기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도덕성 회복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세번째 측면은 교육분야만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측면이다. 즉 도덕적 인간을 길러서 사회에 공급해야 한다는 과업을 교육계는 안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분야에서의 도덕성 회복을 규정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일반명제를 진술할 수 있고, 이 글은 이 명제 위에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전개되어 갈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즉, 교육분야와 관련된 도덕성 회복은 교육체를 구성하는 개인과 집단들의 도덕적 행위원리를 회복하는 것, 교육적 풍토를 도덕화시키는 것, 그리고 교육에 부과된 도덕적 인간을 키워 사회에 투입시켜야 한다는 국가적 분업을 제대로 성취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덕성 회복과 관련된 교육분야에서의 문제는 세차원에서 분석이 가능하며, 아울러 그 대책 역시 이 세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세차원의 문제는 그러나 상호독립된 변수들이 아니라,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변수로 다른 변수가 필요하고도 충분하게 설명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세은 분리되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 세종류의 변수를 조금 자세히 설명해 본다. 우선 첫째 변수는 교육체 내부에 비도덕적인 품성과 행위 규범을 가진 사람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사가 교사답지 못한 경우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교사뿐이 아니다. 제단이사장이 비도덕적일 수가 있고,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태도가 비도덕적일 수가 있다. 교감과 교장이, 그리고 교육행정관료가 개인적인 수준에서 도덕적 수준이 모자랄 수가 있다. 자세한 예는 다음 장으로 미루고, 다만 이곳에서는 교육체 내에, 수준 낮은 도덕 품성을 지닌 사람이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바로 교육체 내의 도덕성 회복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만을 지적하기로 한다. 이

제 두번째 변수로 넘어가 보기로 한다.

둘째 변수들은 곧 교육계를 구성하는 집단 구성원들의 도덕적 지향성과 수준이다. 누가 교육계를 구성하는 집단들인가? 우선 교사집단이 있다. 이 집단들은 확실히 교육계 내부의 중추적인 집단에 속한다. 둘째 집단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대다수가 교사와 학부모에 순종하고, 그들에 종속된 집단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마땅히 교육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학부모 집단이다. 이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서, 학교가 뭔가 자기 자녀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받아야 할 혜택이 적거나 없다라고 판단될 때, 이들은 교사, 학교와 갈등을 일으킨다. 네번째는 교장, 교감, 장학사 등으로 대변되는 관료집단이다. 이들은 국가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교육에 반영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입장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갖지만, 때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와 긴장, 갈등하게 된다. 다섯째는 설립자의 이념과 입장을 대변하는 교수 또는 재단이다. 이들은 학교재단의 이해득실과 설립이념의 달성에 더 몰두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런 경향성이 기타 다른 집단 예컨대, 교사, 학생, 학부모, 정부관료들과 마찰을 겪을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다섯개의 집단들이 교육계 내부의 도덕적 상황과 풍토를 설정한다. 기실 대다수의 교육계의 비도덕적 성향은 이 다섯집단이 연출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집단들과 그 속의 개인들의 도덕적 각성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 다섯집단이 상호간에 벌이는 긴장과 갈등이 아전인수적인 수준에 머물며, 이전투구를 벌일 때, 교육계는 교육계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 비도덕적인 것처럼 보인다. 다섯개의 교육계 구성집단이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행동원리와 행위의 안내도를 제대로 습득하고, 긴장과 갈등을 도덕적으로 해결할 줄 알 때 교육계의 도덕성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세째의 변수는 교육계가 도덕적 인간육성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기여하는가 하는 변수이다. 이 변수와 관련해서는 두가지 차원의 구분이 가능하다. 하나의 차원은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하는 측면인 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도덕 또는 국민윤리의 교육을 말한다. 이를 이른 바 공식적 교육과정 또는 표면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차원은 학생의 도덕적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잠재적 과정의 측면이

다. 즉 학교는 시간표에 짜여진 교과목 수업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고,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권위와의 관계도 배운다. 이런 과정 중에 육도 배우고, 싸움하는 것도 배우고, 선생님께 대한 유파 불평도 배운다. 학교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훈육 방침과 관례에서의 불공평한 대접과, 구조적 비리나 불합리성에 대한 좌절감도 배운다. 공부잘하는 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도 배우고, 필요한 경우에는 컨닝도 해야만 하는 것으로 배우며, 슬쩍 슬쩍 거짓말하는 것도 배운다.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부모를 속이기도 하며, 비행에도 가담한다. 이처럼 학교는 청소년들의 삶이 있는 곳이다. 교사나 학교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색깔의 문화가 학교내부에 존재하며, 이것이 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특정한 유형의 도덕성을 배양,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이 세가지 변수별로, 구체적인 도덕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우리나라 교육분야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 관행들을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그 대책을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 III. 교육분야의 도덕적 상황 : 그 현실

교육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 및 집단들이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 원리 내지는 행위의 안내도를 일컬어 우리는 교육분야에서의 도덕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제 이러한 도덕이 과연 교육분야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다. 개인수준에서의 도덕성, 집단수준에서의 도덕성, 그리고 도덕교육의 효율성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다.

#### 1. 교육속의 비도덕적 개인

학교라는 상황은 분명히 사회적 관계 속에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모두 공동생활에 필요한 법과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그런 개인들이 이와같은 규범을 무시하고 산다면, 누군가는 그리고 교육이라는 활동 자체가 피해를 보게 되고 기능을 상실케 된다.

어느 한 개인이 순전히 이기적인 목적으로 행동할 때, 또는 한 개인이 스

승이나, 동료, 후배 또는 같은 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연고의식이 전혀 없이 멋대로 행동할 때, 그런 학교나 교육 현상은 그 스스로 도덕적 권위를 훼손 당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사립학교의 교수나 재단측의 일부 사람들이 학교의 공금을 유용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이다. 기본적인 도덕품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다. 그들로 인해 교사가 봉급을 못 받고, 그들 중에는 교사들의 돈까지 빌려 가지고 도망친 사람조차도 있다. 유수한 사립학교 재단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적이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다.

②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괴롭힌다. 예컨대 교사가 자기의 어린 제자들을 성폭행하는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여중 1학년 생을 교의지도 단속 교사라고 속이고, 그를 겁주어서 성폭행을 한 예가 있다. 이런 교사들은 애초에 교사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벼젓이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니 놀랍다.

③ 교사들의 정신허약이 많이 눈에 띈다. 교사는 많은 제자들의 삶의 귀감 즉 사표(師表)가 된다. 그런 교사들이 의도를 하거나, 가정의 일로, 또는 학교에서의 내부적인 일로 문제가 생기면, 자살을 감행한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대전의 어느 30대 교사가 순간적인 실수로 의도를 하고, 에이즈감염 공포와 죄책감으로 10개월간 고민하다 결국 자살한 예가 그것이다. 부부싸움 끝에, 경기도 안산의 한 여교사가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결국 교사인 남편의 의도 때문에 일어난 가정불화가 그 여교사의 자살과 관련이 있었다. 또 최근에는 학생을 체벌하다가 팔에 금이 가게 했고, 학부형의 항의를 받자, 이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고 3인 딸과 남편, 그리고 다른 식구를 외면한 채 혼자서 자살해 버린 중학교 여교사도 있었다. 학교라는 풍토속에서 교사의 자살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알아야 한다. 정신적으로 허약한 교사들이 교육의 건강한 풍토를 해친다.

④ 학생들의 비도덕성도 많다. 우선 학교에서 교사들에게 조차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이 많다. 특히 문제를 일으켜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정학처분을 당한 학생들이 스승을 폭행하고 있는 예는 부지기수이다. 아울러 이들은 퇴학당한 후에도, 후배들의 교실에 나타나서 교실 전체를 위협하고, 가방을 뒤져서 금품을 강탈해간다. 제자들에 의해서 폭행당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칼침을 맞고, 돈을 빼앗기는 사례는 학교내

에 비일비재한 사전이다. 이렇게 탈법적이고, 무법적인 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은 한 학교는 도덕적이란 소릴 듣기가 어렵다.

⑤ 학생들의 자해 행위가 많다. “입시지옥이 없는 나라”를 바란다면서, 고교생이 음독 자살을 감행한 예가 한둘이 아니다. 등록금을 못낸 고교생이 또 자살을 한다. 어느 여고생은 학교 주변 폭력배의 행패가 지긋지긋하다면서 아파트에서 투신해 버렸다. 오락실 갈 용돈을 안준다고 국민학생이 목을 매고 자살한 예도 있다. 자기가 예금한 돈을 찾아서 불태워 달라는 유언까지 남기고서 말이다. 학교 교육이 손대기 이전에, 이런 학생들은 기본적인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듯이 보인다.

⑥ 학생들 중에는 비행문화에 물들어 온갖 비행에 가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10대 가출 학생들이 혼숙비 마련을 위해서 자판기를 털기도 하며, 부모님들의 공부하라는 잔소리에 여중생들이 단체로 가출을 해버린다. 그리고는 겁도 없이 유흥가에 뛰어들기도 한다. 포항에서는 어느 고교생이 30대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후 강물에 버린 사건까지 일어난다. 고교생들의 폐싸움은 흔히 있는 일이다. 예컨대, 이웃해 있는 남자 고등학교들은 언제나 라이벌의식을 가져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지낸다. 서울에서 강남의 J고와 G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큰 폐싸움이 벌어져 주민들이 대피한 소동까지 있었다.

⑦ 학부모들도 비도덕적 행위에 가담한다. 학교에 대한 조그만 불만에도 교장실에 전화를 해대며, 학교에서 하는 모든 행동에 일일이 간섭한다. 학교와 교사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과 자기 자식의 이익에 너무 민감하게 행동한다.

이상에 열거해 본 사례들은 그간 교육분야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교육계가 도덕화되기 위해서는 이상과 같은 개인수준에서의 도덕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교사의 도덕적 자질이 고양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적응, 그리고 비행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재단쪽에서 교육에 관여하는 이들의 도덕적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 2. 교육분야에서의 집단간 갈등과 긴장 : 그 사례들

교육분야에서는 개인의 부적응과 비도덕적 성향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집단과 집단간의 대립과 긴장, 갈등도 심각한 문제이다. 교육계가 집단간에 서로의 행복과 복지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행위규범과 행동의 안내도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면, 그런 교육계는 비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교사 집단이 일방적으로 교주, 재단,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피해만 보고 있다면, 그런 상황은 결코 도덕적 “상황”은 아니다. 이제 이러한 측면의 현재적 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정부와 학부모, 교사 등 관련 집단 사이의 긴장과 갈등

우리나라의 교육은 정부가 교육에 관한 일체를 주관하고 중앙 집권형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그와 같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자기 뜻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의 일을 다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평 불만, 그리고 갈등이 비일비재하다. 다음은 어느 신문에 기사화된 신도시에 입주할 학교부지 선정을 놓고 교육청과 기타 정부 부처와의 갈등을 예시한다.

대한주택공사와 경기도 교육청이 산본과 중동 신도시내 학교부지의 유무상공급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서 내년부터 이들 신도시에 입주하는 1만여 초·중교생을 수용할 7개 학교의 3월 개교가 불투명해졌다.

23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군포·산본 신도시내 도전·둔전·능대·광정국민 학교와 도장·금정중학교, 부천 중동의 총흥국민학교 등 7개 학교를 내년 3월에 개교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지난 7월초 이미 학교설립에 착수했어야 하는데도 현재까지 부지매매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기도 교육청은 5개 신도시내 1백 71개교의 각급 학교부지 매입 및 교사신축비가 7천 1백 9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올해 학교시설 예산은 1천 5백 89억원 밖에 되지 않아 주택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5년 분할상환조건으로도 부지의 유상매입을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교육청은 초·중학교 부지만큼은 신도시 기반시설로 간주해 개발을 맡은 주택공사가 무상공급하거나 기부채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사측은 산본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단지내 전입도로·파천선 전철전 설·정수장 설치 등 도시기반시설에만 2천 5백억원이 투자돼 개발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상가 및 테지분양이 100% 이뤄진다해도 약 9백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8만 8천평에 이르는 학교부지를 무상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주공측은 국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70%로, 중·고교 및 특수학교는 조

선원가로 5년분 할상환해 줄 것을 교육청측에 요구, 계약체결전 가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제몫을 다 못해서 생겨나는 교육계 내부의 긴장이다. 이런 일 때문에 학부모는 짜증스럽고,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교육계와 정부에 대한 비판과 불평을 듣게 만든다. 미미한 시설에서 당황하고, 적응못할 자식이 염려되어, 특히 내자식을 눈여겨 보아달라고 남이 안하는 촌지를 건넬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와 학부모 사이의 긴장 관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경축일이나 국경일의 학생동원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심각한 문제였다. 최근 들어서 이런 경향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학생동원의 관행은 남아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학부모들에게 그 자녀들로 하여금 학교공부에만 전념토록 할만한 신뢰감을 주지 못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 이외에서의 공부”에 열을 올리도록 만들고 있다. 이른바 과외나 학원수강이 그것이다. 과외나 학원 때문에 경제적 여유를 가진 집안의 자녀들에게는 유리한 입장이 확보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집안의 자녀일수록 불리해진다. 대학입시에서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적어도 일부의 학부모는 믿고 있어서, 이들은 과외의 전면폐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요구는 정부가 제몫의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집단 사이에서 불공평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런 불공평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원리의 기준이 흐려지고 와해된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 예컨대 과외나 학원수강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 불명확해져서, 각자 자기의 이해 관계에 따라서만 판단하고 있다.

정부와 교사집단 사이의 긴장과 갈등도 심각하다. 많은 교사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의 중요성과 노력에 비추어 걸맞는 대접을 못받고 있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부로 대변되는 정부가 권위주의적으로 자신들을 규제하고 있다고 믿으며, 현재 한국교육이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교사들의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고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은 교사들 사이에 보편적이며, 이 입장을 강경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전교조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다. 정부의 교육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태도, 개혁의지의 부족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하에 교사운동이 조직화되고, 조직의 생리상 힘의 효

율적 행사를 추구하다가 보니, 정치적 색채와 진보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래서 정부와 교사집단은 정면대결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1,500명씩이나 되는 교사해직 사태가 발생하게 되고야 말았다. 교육계 내부의 가장 큰 두 이 해집단간에 서로 뭇을 주장만 했지,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았다. 이 두 거대한 힘의 충돌은 학교 상황을 파국으로 몰아 넣었다. 해직된 교사가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출근케 되고, 새로 부임한 교사는 교사대로 출근하여 교단에 선다. 한 교실에 두 담임이 동시에 나타나서 학생들의 여린 가슴을 조이게 한다. 이런 소동과 혼동을 눈치챈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교육에 무슨 손해라도 올까봐, 교문에 모여서서 해직된 교사의 출근길을 힘으로 가로막는다. 그래서 학교가 혼란스럽다. 이런 와중에 학생들은, 그리고 대다수의 교사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은지”를 몰라 허둥댄다.

이와 같은 파동 속에서 교사들끼리도 마음의 틈새가 벌어졌다. 퇴직된자와 남아있는자, 퇴직자에게 동정적인 사람과 퇴직을 당연한 귀결로 보는 사람 등 시각이 다양하다. 퇴직자에 대한 복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교직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상의 여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계는 아직 정부와 관련 교육집단 구성원간에 정착된 행위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간 정부는 막강한 권한과 권위를 행사해 왔고, 나머지 집단은 그냥 복종만 해 왔다.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권위—복종” 관계가 그냥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가 관련 구성집단과 보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② 재단과 교사, 학부모, 학생집단과의 긴장과 갈등

교육분야에서의 중요한 비도덕적 측면의 하나는 사립교재 단의 횡포이다. 예컨대 교사를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온갖 권력과 빼어 작용한다. 돈과 줄이 없이는 사립학교에 교사로, 교수로 채용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물론 전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가 그렇다 하지만 그런 현상이 결코 희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계를 보는 사회일반인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다. 3년전에 어느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채용될 당시에 재단에 기부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내서 세인의 가슴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채용될 당시에 많은 “뒷돈”을 낼 수 밖에 없었다는 그들의 설명에 대다수 국민들은 아연실색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일이 지금 현재는 사라지고 없는 것일까?

아래 글은 불과 몇개월(1992. 7月)전에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가 쓴 실화기사이다. 교사직에의 채용을 미끼로 사기가 횡행한다는 이야기인 바, 이는 결국 교육계의 관행 수준을 엿보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씨는 87년 ○여대 교육학과를 졸업 할 때 까지만 해도 자신이 교사가 될 것으로 믿었다.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을만큼 성적도 우수했다. 하지만 그녀의 첫 직장은 영어회화 교재를 만드는 회사였다. 졸업 후 공립학교는 아예 길이 막혀 사립국민학교에 여러번 이력서를 보냈으나 번번이 퇴짜를 맞았던 것이다.

2남 2녀 중 유독 李씨만을 대학까지 마치게 했던 흘어머니(53)가 더 안타까워했다. 어머니는 백방으로 딸의 교직자리를 수소문, 몰래 H국교 한 관계자와 교직을 8백 만원에 「계약」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뜻밖의 경쟁자에게 밀려 李씨의 꿈은 무산됐다. 본업을 찾기 위해 다니던 직장마저 그만둔 뒤의 일이었다. 李씨는 그 후 중고생 과외지도로 밤벌이에 나섰다. 그래도 교사에의 꿈을 버릴 수는 없었다. 주위에서 교직을 미끼로 수차례 「뒷거래」 제의를 받은 것도 이때였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아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다짐하곤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심은 3년을 못갔다. 지난해 말 어머니는 李양에게 S국교 이상장을 잘 안다는 金모여인에 대해 말을 꺼냈다. 그 여인은 확실한 「줄」이고 교사직을 조건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다.

李씨는 직접 金여인을 만나 1차로 3백만원을 전네줬다. 그리고 『자리가 2개뿐』이라는 말을 듣고는 1백만원, 『경쟁이 심하다』는 으름장에는 2백만원… 그렇게 해서 자신이 모은 돈과 여동생의 퇴직금을 합쳐 모두 7백만원을 전네주었다. 그러나 金여인은 아무런 「줄」이 없는 사기꾼에 불과했다. 『교직의 꿈마저 사기당했어요.』 李씨는 이제 교단에 서기를 단념했다.

재단의 횡포는 비단 교사 채용에만 나타나는게 아니다. 교육을 질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별로 기울이지 않는 사립학교 재단이 한둘이 아니다. 예컨대 사립대학교들의 법정교수 확보율은 71%에 지나지 않는다. 학생을 모집해서 비싼 등록금을 받아가면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는 채용치 않고 있다. 법정교수 확보율이 50%를 밀도는 대학이 부지기수이다. 학교운영비 중에서 재단 전입금이 16%에 불과한 대학이 물결 83개 사립대학에 이른다. 1년에 단지 3,000원만을 운영비로 내놓는 사립재단도 있다고 한다. 재단이 왜 교육기관을 만들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사립학교재단은 또 교수나 교사에 대한 해직과 퇴직을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채용한 교사를 면직시키는 사례가 사립 중·고교에서 빈번히 일어난다. 아울러 재단은 여러가지 이유로 정부의 권고와 정책적 유도에

호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연도 가지고 있다. 다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천주교와 전교조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은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지난 91년 1월 18일 S여고 김교사 등 6명을 직권면직시키면서부터다.

경기도고위 쪽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현직 교사가 전교조에 남아 있는 학교임을 내세워 지난해 7월부터 1월초까지 8차례나 계고장을 보내 1월 20일까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끝내지 않을 경우 △교장임명 취소 △재정지원 중단 △학급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압력을 재단쪽에 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 추기경은 지난 14일 직권면직된 양교사 등 3명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당국이 학교에 8차례나 계고장을 보내왔고 이 일로 학교장이 그만둬야 할지 모른다”며 현재 처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단이 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사자 및 학생의 반발뿐 아니라 전교조도 즉각 “민주화 세력의 큰 동지를 잃어버린 아픔을 느낀다”며 정계철회를 요구하는, 실망과 비난이 함께 섞인 성명을 발표했다. 전교조가 S여고 문제에 대해 곧바로 공개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S여고가 단지 천주교재단 소속 학교라기보다는 김수환 추기경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전교조가 그동안 전국적으로 천주교재단에서 모두 28명의 교사가 해직됐지만 이번 만큼 강도있고 신속하게 대응해 오지 않았던 편에서도 잘 나타났다.

전교조의 한 간부는 “반민주 대야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려울 때마다 큰 흐름을 잡아온 추기경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전교조 교사를 당국의 압력에 굴복, 해직시킨 것은 큰 충격이지만 추기경에 대한 존경과 기대는 변함이 없다”며 “잦은 압력을 동원, 성직자와 교사의 생명인 양심마저 저버리게 하고 양심세력끼리 갈등을 야기시키는 당국이 밉다”고 말했다.

재단쪽은 지난 1월의 직권면직조치가 재심 결과, 결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지난 13일과 20일 두차례에 걸쳐 징계위를 다시 열어 징계를 강행하려 했으나 당사자들과 동료 해직교사들의 저지로 징계위가 무산되자 22일 해당교사들에게 1월 20일자로 직권면직했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S여고 해직교사 등 전교조 교사들은 추기경과 천주교쪽이 양심과 정의에 따라 징계를 철회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징계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 천주교정의구현전국자체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가톨릭노동사목협의회 등 천주교 안의 진보적인 단체들이 S여고 해직교사뿐 아니라 이제까지 해직된 천주교 재단 소속 교사들이 하루빨리 교단으로 돌아가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중재요청서를 보내는 한편 국민과 신도들을 상대로 홍보를 벌이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과연 김추기경이 당국과 전교조 등 양심세력의 틈마구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가 주목된다.

이상과 같은 재단과 기타 교육구성원 집단간의 갈등은 무엇을 예시 하는

가? 서로간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기본적인 행위규칙과 행위의 안내도에 대한 혼란이 크게 상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 ③ 교사와 기타 집단과의 갈등과 긴장

교사는 분명히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언제나 또 다른 교육구성원 집단의 감시, 감독하에 있으며, 긴장과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한다. 교사들은 가끔씩 학생들을 쳐벌하기도 한다. 그러다 가운데 나쁘면, 체벌이 지나쳐서 학부모들과 시비를 벌리기도 한다. 자기 자식을 때린 교사를 경찰서에 고발한 부모가 한둘이 아니다. 어떤 부모는 교사를 직접 위협까지 하며, 이를 고민하고 부끄러워한 교사가 자살까지 해 버린 예도 있다.

교사나 교수들에 대한 학교, 학부, 학생들의 눈이 언제나 고운 것은 아니다. 한 예로 학생들은 교수 평가제의 도입을 요구한다. 또 대학의 총장이나 경영자들은 교수의 자질관리를 위해서도 교수평가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정작 대학 교수들은 그런 교수 평가제를 결코 달가워 하지 않는다.

아울러 교사들은 학생이나 사회일반인들로부터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를 감시받는다. 즉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교사들은 제재의 대상으로 급전직하하게 된다. 예컨대 다음에 신문에 난 사례를 보자.

경찰이 학생들에게 교과과정 이외의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Y여중 최교사의 수업 내용을 문제삼아 수사를 하는가 하면 학교쪽이 최교사에게 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1일 최교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산 K경찰서 대공과 형사가 학교로 찾아와 최교사가 맡고 있는 2학년 학생들의 국어 공책을 복사해 간 뒤 19일엔 출신학교인 Y대로 찾아가 시위 전력여부를 조사해 갔다.

또 이 학교 K교장은 담임 및 주임교사들에게 최교사를 ‘의식화 교사’로 매도하고 ‘교과과정이 아닌 내용의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교사는 “수업 중 분위기가 산만할 때 전전가요인 ‘일요일이 다 가는 소리’ 등을 부르게 해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글쓰기 교육의 한 방법인 ‘소재찾기’와 ‘자유연상’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제시한 주제로作文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교사는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작문 ‘북한 청소년에게 보내는 글의 주제와 내용을 마치 교사가 일방적으로 불러줘 공책에 받아 적게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교장은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으며 K서 대공과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이상한 노래를 가르치고 공책에도 이상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학부모의 신고에 따라 내사를 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이런 예도 있었다. 교사를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긴장과 갈등 관계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어느 신문(국민교육신문)에 난 글을 전재해 본 것이다.

얼마전에 부산에 있는 모 여고생이 자살 소동을 벌인 일이 있다. 전교조 가입으로 인해 파면된 선생님을 교단으로 돌아오게 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 시내 2중학교에서는 교사 징계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

연전에 전교조에 가입했다가 전략적(?)으로 탈퇴 각서를 쓰고 협회에 날아 있는 모 교사가 수업 시간에 영동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된 것이다.

사연인즉, 김영랑 시인의 시를 가르치는 장면에서 “이 사람은 친일파 시인일 뿐만 아니라, 민족 의식을 나약한 감정으로 몰아가는 시를 쓰는 사람이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가만 있을리 없다. “선생님, 연합고사 시험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는 틀려도 좋아!”

소신에 찬 교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러한 사실은 곧바로 학생들을 통해 가정으로 전해졌고, 교육열 높은 우리 학부모님들 그냥 지나칠 리 없는 일. 결국 교장 선생님의 사과와 설득으로 더 이상의 확대를 모면하기만 반복과 절시라는 악순환만 더해놓고 말았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그것이 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국정 교과로 되어 있는 국어 교과서의 내용 중 특정한 부분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일까?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것과 서정적인 시를 학습하는 것이 대타적인 관계일 수 만은 없는 일. 설사 작자가 친일파라 할지라도 말이다.

그 순간 침묵했던 다수의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느꼈을까? 다양하고 대립적인 견해가 타협하며 공존하는 원리를 깨달았을까?

우리 선생님은 소신있는 민족주의자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까?

아니면...

어쩌면 국어 시간에 투사의 자세를 배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비교육적인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진보적 교육자가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주의 교육을 위한 선생님의 이상에 박수를 보내고 교육 민주화를 위한 선생님의 소신에 존경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주의 교육이라는 가방 속에 들어 가는 모든 내용이 인간적 일 수 없다. 뜻을 담고 있는 가방은 아무래도 똥가방에 지나지 않는 것. 내용물에 따라 가방의 비중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인간주의 교육이라는 가방을 들고 다니며 인간주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 그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결국 교사, 학생, 학부모는 언제나 조화롭게 지내지는 않는다. 그들 사이에는 긴장과 갈등이 언제나 존재한다. 이런 긴장과 갈등은 학교라는 제도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있을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선진국에도 있는 현상이다. 다만 이런 선진국에서는 그런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는 공식적 장치가 되어 있으며(예컨대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법절차의 구비), 대인관계의 사회적 기술이 발달되어 있고, 그들은 이 기술에 익숙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식적 법절차가 없거나 왜곡되어 있고, 대인관계 기술이 교육구성원 어느 집단에게도 결여되어 있다. 자기만이 옳고, 바르다는 흑백논리만을 고집하고 있다 는 것이 바로 그런 기술의 결여를 뜻한다. 정부관료나 교사집단들만이라도 이런 대인관계 기술에 능숙하고, 융통성 있기를 기대하지만, 그들 모두 대화와 타협할 자리에 놓여서 조사, 상호 의심하고 불신하며, 매도하는 행태를 바꾸지 못하고 있다.

#### ④ 기타 교육계 내부의 비도덕적 문제들

우리나라 교육계 내부를 풍미하고 있는 풍토는 협동적 분위기가 아니라, 경쟁적 분위기이다.

교사를 사이에서도 승진, 담임배정, 각종 여행기회, 출장, 보직, 연구비 등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는 분위기가 강하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적 경쟁이 극심한데 사실이고, 학부모들끼리는 담임선생을 둘러싸고 “잘 모시고”, “잘보이기” 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같이 교육계 내부에 강하게 도사리고 있는 각 차원의 경쟁이 우리의 교육을 비도덕적 풍토로 몰아가고 있다.

교사들이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고과점수가 높아야 한다. 그 점수는 누가 매기는가? 결국 교장과 교감이 매긴다. 그래서 평교사들은 교장과 교감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다. 일을 잘 해서도 잘 보일 수 있지만, 기타 다른 인간적인 관계의 유지를 통해서도 잘 보일 수는 있다. 교사들의 승진은 또 시·도 교육위원회나 교육부

등으로 연구사나 장학사로 전출됨으로써도 보장된다. 따라서 연구사나 장학사가 되기 위한 교사들의 경쟁도 치열하다. 과거에는 이 경쟁이 너무 불공정하다는 시각이 있어 윗으나 요즈음에는 시험으로 뽑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장학사, 연구사가 되기 위한 경쟁심리는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고과 점수를 얻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매년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연구대회에도 많은 교사들은 열심히 참가한다. 이곳에서 우등을 하게 되면, 고과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 연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는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최소한 6개월 이상에 걸친 준비와, 연구논문의 작성이 요구되며, 시·도 지방대회와 중앙대회에 참가해야 한다. 이런 모든 준비를 위해서 교사는 학교업무는 업무대로 추진하면서 연구를 병행시켜야 한다. 대다수의 다른 교사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입상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교사들에게 또 강하다.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에도 신경을 써야 하고, 연구일로 학교일에 소홀히 되는 것을 염려해서 교장과 교감 등에게도 미안해 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연구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에 드는 경비가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이런 모두가 승진을 위한 경쟁풍토에서 발생한다.

학생과 학생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쟁은 성적 경쟁과, 교사들의 눈에 “들기경쟁”, 학생회나 반장 등의 선거직에의 경쟁, 학생간의 조직이나 클럽끼리의 경쟁 등이 있다. 모든 학교에서는 성적 경쟁이 보편화 되어 있다. 대다수의 학교가 석차 즉 등수로 성적을 매겨 주기 때문에, 내가 “우리반에서 몇등”이라는 것이 중요한 화젯거리이다. 학교에서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몇등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등수가 비슷한 학생들끼리는 시기심·질투 때문에 잘 어울리지 못한다. 학생끼리 공책을 빌리거나, 서로 모르는 것을 물고 가르쳐 주는 협동적 관계가 드물다. 서로로가 경쟁하기 때문에, 인간 관계가 전성전성으로 이루어지며, 진지하지 못하다. 시험에 몇 개 틀렸는가?” 하는 질문에 다른 아이의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서 털수록 많이 틀린 척 한다. 자기 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가 병에 걸려 입원이라도 하면, 그 학생에 대한 염려보다, 내가 한 등수 더 올라갈 수 있음을 더 즐거워 한다. 여학생들 간에는 교사 특히 총각교사를 상대로 한 “인기풀기” 작전이 놀랍다. 하숙집을 찾아가고, 전화를 하며, 숙직실엔 찾아오는 행동이 비일비재하다. 이러는 과정에서 경쟁하는 학생들끼리 긴장

과 갈등이 많다. 좋게 결말이 나고 해결이 되면 한때의 낭만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으나, 이것이 왜곡 되거나 지나치면, 또는 교사가 이에 지혜롭고 교육적으로 대응치 못하면, 심각한 비도덕의 문제로 비화하기까지 한다. 아울러 이런 것이 편애로 인식되거나, 성적 주기에 대한 불신으로 비치게 되면 온갖 이상스런 소문으로까지 번지게 된다. 비교육적 소문을 그래서 우선 많이 듣게 된다.

국민학교에서 반장직을 둘러싼 학부모간의 경쟁이 심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유착관계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이 돈다. 반장에 입후보한 아이가 비싼 학용품을 돌리거나, 집안에 초대해서 고급 음식을 대접한다는 얘기도 있다. 학부모는 교사를 찾아가 로비조차 한다는 소문도 있다. 고등학교에 이르면, 일반인들의 선거에 벼금갈 금력과 폭력이 작용한다. 이런 모든 것이 비도덕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육계 내부에 이런 문화가 존재하고 있는 바, 이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방이후 이런 풍토는 계속되어 왔고, 아마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한, 이런 것은 계속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학생 간에 존재하는 비도덕적 행태 중의 하나는 학생들끼리의 긴장과 갈등이다. 예전대 새로 전학온 아이를 겁주고 길들이며 신고 받는 행태가 고등학교에서 뿐 아니라 이젠 국민학교 3,4학년에까지 전파되어 있다고 한다.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매질을 하고 골탕을 먹인다. 이른바 “기를 잡는다”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짹째 조직이나 클럽이 생기는 것이 중·고등학교에 일 반적인 현상이다. 자기의 조직과 클럽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행적인 일도 서슴없이 행한다. 자기 조직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비도덕적 현상들은 모두가 교육을 구성하는 집단들간의 긴장과 갈등을 지혜롭게 풀지 못하는 도덕적 무능력, 무감각 때문에 생겨난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은 다음 장에서 논의키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 교육의 효율성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을 짚어가 보기로 한다.

### 3. 학교에서의 도덕교육의 비효율성 : 그 현실

도덕성 회복과 관련해서 교육이 지고 있는 사명은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육계 내부가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계는 도덕적 인간을 길러내서 사회에 충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의

측면에 관해서, 즉 교육계 자체가 얼마나 도덕적인가 혹은 비도덕적인가 하는 것은 앞에서 충분히 언급했다.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교육계가 받고 있는 도덕적 인간 육성이라는 책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차례이다. 이것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표면적 교육과정의 차원이며, 다른 하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측면이다.

### ① 도덕교육의 표면적 교육과정

해방이후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은 오늘날까지 큰 골격의 변화없이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 골자를 짚어 보면 다음의 몇가지로 요약된다.

a. 초·중·고등학교에 걸쳐서 대략 주당 2시간씩 매학기, 매년 가르친다. (다만 고등학교는 3학기 정도 가르치고, 1996년 이후부터는 국민학교 3~6학년에서는 주당 1시간씩만 가르친다).

b. 초·중학교에서는 도덕,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로 교과목명이 정해져 왔으며, 1996년 이후부터는 국민학교 1,2학년에서 “도덕” 대신 “바른생활”로,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 대신 “윤리”로 바꾸어 가르친다.

c. 도덕과 국민윤리의 교과서는 국정(國定)으로서 국가가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1권씩 정하여 가르치는 바 그 내용은 개인도덕, 가정, 이웃도덕, 시민도덕, 국가도덕, 그리고 반공, 통일, 안보, 이념교육을 망라해서 포함시킨다.

d. 도덕 및 국민윤리 담당 교사는 국민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중학교에서는 교과 전담교사가 가르치는 바, 1985학년도 이전까지는 사법대학에서 윤리교사가 양성되지 않아서, 교육학, 심리학, 철학, 사회담당 또는 희망하는 교사에 의해서 가르쳐 왔다. 교감과 교장 등에 의해서도 가르쳐지곤 했다. 그러나 1978년에 국민윤리교육의 석사과정, 1981년에 국민윤리 학사과정이 생겨 남에 따라 도덕·국민윤리 전담교사가 1981년과 1985년부터 생겨났다. 그러나 석사과정 졸업자는 주로 대학에서 국민윤리를 가르쳤고, 1985년이 되어서야 비로서 중·고등학교에 국민윤리 전공자가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에도 국민윤리 전공자가 도덕·국민윤리를 맡고 있는 비율은 20% 내외이고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과목 상치교사가 도덕·국민윤리를 가르치고 있다. 과목 상치교사란, 예컨대 영어 전공교사가 국민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e. 도덕·국민윤리에서 가르친 내용은 1973년도 이전까지는 주로 덕목의

주입과 교화, 설득을 전제로 한 권선징악 형태의 내용이 많았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도덕적 판단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도덕판단연습이 도덕 교육의 촛점이 되어야 한다는 이론이 풍미했었다.

지금까지도 이런 기준이 도덕교육 지침으로 남아 있기는 하나, 이것이 실제로 도덕교육현장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f.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교육과정이 교육부의 주관으로 준비되어서 1992. 10월 말로 완료되어 공포되었는 바, 여기에 나타난 도덕교육의 방향은 5차까지의 방향과 큰 다름이 없다. 다만, 총론에서는 도덕교육의 강화가 크게 미사여구화되어 있으나, 실제는 각론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국민학교에서는 그나마 주당 2시간씩 가르치던 도덕을 주당 1시간으로 축소 조정했다. 고등학교에서도 특활과 제 2외국어를 각각 4단위, 2단위씩 증가시켰고, 대입위주의 수업과 교육과정운영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도덕교육은 당연히 약화추세를 보인다. 아울러 1993학년도부터 바뀌는 대입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민윤리”문제의 반영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서, 고등학교에서의 국민윤리 교육은 이미 명맥만 남는다. 예컨대 1968년 이래 1992년까지 도덕·국민윤리는 국책과목으로 인정되어 대입 학력검사에서 언제나 14문제 정도가 출제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 바뀌게 될 대학수학능력 시험에서는 고작해야 1~3문제만이 잘해야 출제될 것이 틀림없다. 결국 도덕·국민윤리가 약화된 것이 6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색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수학능력 시험에 의해서 더욱 가속화 되리라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진행되어온 학교에서의 도덕 교육은 그간 얼마나 효과를 거두어 왔을까? 이런 점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교육에 관련한 책무성(accountability)을 경험적으로 측정한 시도는 거의 없다. 다만 1989년 이래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제학력평가기구(IEA)와의 협동작업 취지로 3년간 도덕교육평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여기에서 두가지 보고서가 나왔는 바, 첫째는 “한국도덕교육의 위상”이었고, 그 다음이 “중학교 도덕교육 평가”였다. 이 두 평가 보고서는 그러나 도덕교육의 효율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에는 너무나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한다. 예컨대 도덕교육의 효율성을 직접 재기보다는, 도덕 교사들에게 “당신은 지금의 도덕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따위의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5단계 평점을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아주 긍정적은 아니

었으나, 대체로 긍정하는 편이었다. “안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반응이 많다. 도덕·국민윤리 교사이기 때문에 아전인수적인 답변이 많았으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간접적인 평가 이외의 자료를 얻기란 실제로 어렵다. 예컨대 도덕교육의 효율성을 재는 기준(criterion)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청소년들의 비도덕적 수준을 재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청소년 범죄·비행률, 학생비행 증가율 등이 학교 도덕교육의 직접적인 효과를 재는 정도가 될 수 있을까? 일주일에 단 2시간, 도덕선생이 가르친 결과를 청소년 비행, 범죄, 학생비행 증가율로 그 효과를 겸증받는게 과연 타당할까?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 대답을 하기가 어렵다. 이는 흡사 양복점에서 단추만을 다는 사람에게, 양복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덮어씌우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나 학교의 도덕교육에 대한 일반 여론은 있게 마련이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사회의 비도덕화 현상을 초·중·고등학교에서의 1~2시간짜리 도덕교육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고, 그런 도덕 시간을 없애야 한다거나, 지금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은 없다. 지금의 도덕·국민 윤리교육이 사회의 도덕적 폐폐를 막을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이들은 그래도 뭔가 학교의 도덕시간이 애써 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그나마 주어진 여건 하에서 도덕교육이 애쓰고 극복해야 할 점을 사회 일반인과 도덕교육 담당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로, 현재의 도덕교육이 너무 이론에 치중되고 있어서, 행동의 도덕화와는 거리가 멀게 진행되고 있다. 학생들이 도덕시간을 통해서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관련된 지식을 암기하고만 있다.

둘째로, 도덕수업에서 평가의 관행이 잘못되어서, 도덕시간에 높은 점수를 받는 아이가 곧 가장 도덕적이 아니다. 곧 평가 때문에 도덕수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세째로, 학교에서 배운 도덕적 원리와 규범이 도덕교사 자신에 의해서, 다른 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의 풍토에 의해서 격려되기 보다는 오히려 무시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가르친대로 하면 바보라는 관행이 학교내부에 조차 있다. 도덕 교사 자신이, 도덕책에 쓰여진대로 행동하는 학생은 바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회에 나가서 원칙대로 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오늘날 도덕교육 즉, 학교에서의 도덕에 대한 표면적 또는 공식적 도덕교육과정이 제대로 의도한 바대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덕교육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점에 관한 언급은 다음 장에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주제, 즉 도덕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언급코자 한다.

## ② 도덕교육의 잠재적 교육과정

잭슨(P. Jackson)이 “교실속의 삶”(Life in Classrooms, 1968)이라는 책을 통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말을 소개한 이래로, 학교의 교육기능을 표면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구분해 보는 관점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다.

학생들은 읽기, 쓰기, 셀하기 등의 3R's나 영어, 수학, 역사, 사회, 과학 등의 교과를 교육과정이나 학교 시간표에 정해진 바에 따라 배운다. 이것이 표면적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삶은 이 시간표에 있는 활동과 내용에로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급우들과의 삶이 그 속에서 전개되고 있고, 선생님들과의 상호작용도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학교 교육계획상에는 의도되고 계획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학교의 삶 속에 전개되는 활동이 있다. 이를 잭슨은 잠재적 교육과정이라고 개념화 했다.

잭슨에 의하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세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첫째 학생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동료집단속에서 적응하며 사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실상 학교는 이런 적응방법을 공식적으로는 못 가르친다. 둘째, 학생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상별의 기준과 방법을 습득한다. 선생님의 칭찬과 벌이 동료집단 사이에서는 벌과 칭찬으로 뒤바뀔 수 있음을 이들은 배운다. 셋째, 학생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상의 권리구조와 권위의 배분과 지배—복종의 행위원리를 배운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 하고,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런 세가지는 표면적 교육과정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독립적으로 학생들의 행위규범을 형성시킨다. 다시 말하면, 수업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든간에, 잠재적 교육과정은 별도의 메세지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며, 그 힘은 물론 공식적 교육과정의 메세지보다 더 강력할 수가 있다.

잭슨이 이렇듯 ①동료집단에의 적응, ② 상별체제의 습득, ③ 권리구조에의 적응 등이 잠재적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행사하는 교육효과라고 보았는데, 이런 효과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① 규칙, ② 규정, ③ 관습적 행동

으로 말할 수도 있다. 즉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필요한 규칙, 규정, 그리고 관습적 일상행동을 배운다.

이렇듯 잭슨이 말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교육적 효과는 주로 학생들의 도덕적 삶의 측면과 관련되어 있다. 즉 “사람들끼리 모여 살 때, 서로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학생들은 표면적 교육과정에서보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배운다. 즉 이런 행위 원리를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교실에서 실제로 전개되는 동료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체험을 통해서 배운다.

이렇듯 오늘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도덕적 교육 메세지는 두 경로를 통한다. 하나는 “도덕”과 “국민윤리”라는 교과 수업을 통한 표면적 교육과정의 통로이며, 다른 하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통로이다.

이 두 통로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은 상호 상충적일 수도 있고, 보완적일 수도 있으며, 상호 아무런 관계도 없을 수 있다. 그 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를 수합해 보면 “상호 상충적”이라는 결론이 우세하다. 이런 “상호 상충성”인 측면의 한 예를 들라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도덕, 국민윤리 시간에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라고 추상적으로 배우지만, 실제에 있어서 정직하게, 남들이 다하는 컨닝을 안하면, “자기만 손해가 되는 경험”을 학생들은 겪는다. 시험부정이 뚩인되거나, 제대로 철저하게 적발되지 않는 교실과 학교 분위기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표면적 교육과정 하에서 이룩된 교육효과를 상쇄시켜 버린다. 여기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정직하면 나만 손해다”라는 메세지는 물론 아울러 “수업시간중에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이 옳지 않다.”는 반교육적 메세지도 아울러 준다.

이런 점에서 보면, 도덕, 국민윤리 시간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도덕적 가치와 규범을 잘 교육시킨다고 하여도, 학생들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체험케 된다면 도덕교육의 효과는 전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실제에 있어서 우리의 도덕교육의 비효과성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표면적 교육과정에 대한 반동적 혹은 대항적 성격 때문이라 보여지기도 한다.

우리의 학교현장에 존재하는 비도덕적인 잠재적 교육과정은 무엇일까? 욕하는 것, 싸움하는 것,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요령을 펴서 들키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는 것 등등 편하게 살

아가는 방법을 우리의 아이들은 초·중·고의 12년간에 걸쳐서 배운다. 이런 구체적인 행위요령 이외에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한 태도도 배운다. 예컨대 공부 잘하는게 최고이며, 공부 못하면 사람취급 못 받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절감한다. 이 세상은 똑똑하고, 힘센 사람들만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별 볼 일 없다고 체득한다. 학교에서의 우열반 편성을 통해서 이런 메세지(교사가 의도한 교육적 효과는 전혀 아닌 메세지)가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또 공부 잘하고 요령있는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재미있고, 선생님들의 귀여움 속에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암시적으로 그런 것을 체득한다. 아울러 학교는 또 알게 모르게 남·녀 성차별을 조장한다. 물론 의도적인 계획된 목표는 절대 아니다. 예컨대 다음의 신문기사 내용을 보자.

중·고생에게 예절과 친로지도, 지도력배양 교육을 하는 학생교육원이 성차별교육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개발원은 지난해 6월 전국 14개 교육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프로그램분석, 참여관찰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73년 화랑교육원으로 시작한 학생교육원은 올바른 국가관학립과 섬성계발교육 등 2가지 목적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사업당교육원,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 등 여학생 전용교육원은 「어질고 알뜰한 한국적 여인상」「현숙한 여성으로서의 자질 함양」 등을 설립목적으로 내세워 여성역할을 한계짓고 예절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예절교육의 경우 남녀공용교육원에서 「현대 예절이라는 수련교재를 같이 쓰면서도 남녀의 역할을 뚜렷이 구분해 가르쳤다. 남성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기본철학으로서 예절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반면, 여성에게는 식사예절이나 손님접대 등 가정예절로 제한해 가르치고 있는 것. 특히 여성이 남성을 리드하는 모습을 흔히 벌하기 쉬운 무례사례로 제시하는 등 성차별적인 의식을 은연중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내용뿐 아니라 「여자는 무릎을 불이고 사뿐사뿐 걸어야 남편에게 사랑받아요」「여자 목소리가 큰 것은 추태입니다」 등 교사들의 언어에서 성차별의식은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로지도 교육은 여학생(35.6%)이 남학생(29%)보다 더 많이 「제일 받고 싶은 교육」 내용으로 꼽고 있었다.

그러나 남학생은 구체적인 직업과 연결해서 자아실현의 방법으로 친로지도를 하는 반면 여성은 친로에 대한 바람직한 마음 자세 등 원칙론에 그치고 있다. 또 차예절시간에 남학생은 차의 역사와 유래, 성분과 효능을 가르치고, 여학생은 찻잔 잡는법, 따르는 법 등을 다루는 등 이분법적인 성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결코 학생 교육원들이 성차별의식을 확대시킬 목적으로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교육중에 거의 암묵적으로 성차별의식이 길러지고, 심어진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개발원 측의 주장이 옳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다.

성차별 의식만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길러지는게 아니다. 빈부차이

와 권력있는 부모와 집안 그리고 힘없는 부모와 집안의 차이를 학교 다니면서 실감하는 학생이 많다. 돈있고 권력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사들의 잘해주는 것을 보면서, 돈과 권력이 없는 집 아이들은 돈과 권력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자기들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함께 키운다. 이들의 머릿속에 남겨진 메세지는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 대한 동경과 아울러 빈부와 권력차이에 대한 사회적 불공평감이다. 일종의 적의 (hostility)와 대항심리를 같이 키운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기회와 성적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불공평하게 배분된다. 예컨대 중학교에서 조차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보충수업을 하는데, 하루 1시간씩 한 학기 동안 보충수업료가 10만원을 상회한다. 결국 수업료가 두배 가량 증가되는 셈인데, 없는 사람의 경우는 이런 보충수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1992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중 약 51.2%인 2,293명이 고교재학시절 과외공부를 별도로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음대·미대의 경우는 약 70% 이상의 학생이 과외공부를 받았다. 결국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받은 사람은 그만큼, 서울대 입학에 핸디캡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이와같은 돈의 위력을 경험하게 되는게 우리나라의 학교이다. 어디 돈의 위력만 체험케 되는가 권력의 힘도 체험한다. 친구 5~6명이 함께 나쁜 짓을 저질러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권력이 센 부모나, “빽”을 지닌 부모를 가진 아이들 순서로 하나씩 들썩 경찰로부터 풀려나간다. 제일 나중에 아무런 권력의 배경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만 1~2명 남게 되고, 결국 이들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게 된다. 학교 교사들의 중재로 풀려 나오게 되면, 학교의 자체 처벌이 시작되는데, 역시 권력이 센 아이일수록 그저 반성문을 써 내는 정도로 그치고, 권력이 없는 아이일수록 정학 등의 비교적 센 처벌을 받는다. 똑같은 비행을 저지르고도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벌칙이 곧 아이들에게 중요한 메세지를 준다. 권력과 빽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권력과 빽을 지닌 아이는 어렵게 대하고, 존경하고, 그렇지 못한 아이는 아예 무시해 버린다. 권력과 빽, 그리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저울질하는 삶의 태도가 이렇게 형성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또다른 한 차원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일반사회의 착취적, 위협적(危害的) 환경을 끊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비교육적, 비도덕적 성격이 학생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비도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학생들을 둘러싼 비도덕적 환경은 “이제 올 때까지 다 왔다”는 인상을 준다. 아무리 학교와 가정에서 도덕적인 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회자체가 위해적이고 비도덕적인 환경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런 교육은 물거품과 다름이 없다. 구체적인 위해 환경을 몇 가지 꼽아 보겠다.

a. 학교 청소년들이 성적인 방종과 탈선을 부추기는 환경에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되어 있다. 정동철 교수의 연구(1990)에 의하면 50.6%의 청소년이 포르노와 음란 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그것들을 보기 시작한 때를 보면 국민학교 때가 20.6%, 중학교 때가 59%, 고등학교 때 13.2%, 고등학교 이후가 5.8%였다. 대다수 청소년이 이미 국민학교와 중학교 때 이미 포르노와 음란비디오를 보고 있었다.

b. 컴퓨터 업자에 의한 퇴폐적인 음란 프로그램이 학교 청소년의 컴퓨터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다.

다음은 이 문제에 관한 동아일보의 기사이다.

지난 27일 경찰에 적발된 사설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음란퇴폐프로그램 유포사건은 이제 「도색문화」가 첨단통신장비를 통해 일반가정에까지 벼젓이 침투되고 있음을 드러내 매우 충격적이다.

특히 음란컴퓨터통신의 주요 고객이 성적호기심이 강한 중고생 등 사춘기 청소년들임이 밝혀져 컴퓨터통신이 10대 성범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개인컴퓨터와 전화를 연결해 가입자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BBS(전자게시판)를 이용, 노골적 성행위 장면이나 여자 누드사진이 들어있는 음란프로그램을 전송해 주고 돈을 받는 「도색영업」을 해왔다.

구속된 Y씨(25)는 지난 3월초 공인 BBS인 「코텔」「메이컴」「천리안」 등의 광고란을 통해 「피닉스」라는 사설 BBS를 개설, 회원 70여명을 모집한 뒤 「사라」「개이야」 등 노골적 성행위 장면이나 여자 모델의 나체사진들이 들어있는 외국의 음란디스켓프로그램을 전송해 주고 돈을 받는 「도색영업」을 해왔다.

c. 학교 청소년들이 대입 시험이나 공부에 대해서,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의 대단한 스트레스란 병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사회학회 가족문화연구회의 조사에 의하면 대입 수험생의 43.1%가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또 그 수험생의 어머니들이 “고 3 병에” 시달리고 있다. 두통, 소화불량, 스트레스가 그것이다.

d. 학교 청소년 상대의 대중문화가 청소년들의 전전한 정서를 키우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의 정서를 왜곡시키고 있다. 현재의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말살시키고, 해방시키며, 노출시키는데 기여할 뿐, 스스로의 정서를 승화시키고, 통제하며, 고급화, 세련화시키는 쪽으로는 기여하지 못한다. 즉 현재의 대중문화는 억제된 감정과 정서, 충동을 발산시키는 것이 좋다는 메세지를 주며, 결코 성숙하고 세련된 정서의 표현을 강화 격려시키지 못한다. 다음의 사례에서 왜곡된 대중문화의 우상에 의해서 왜곡된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본다.

17일 오후 6시쯤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안 체조경기장 앞.

최근 국내 10대 청소년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의 5인조 남성그룹 「뉴키즈」의 공연을 보러 나온 10대 소녀 4천여명이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4백㏊ 가량의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노래·용모·무대연출… 나는 뉴키즈라면 모든게 좋아요. 평생의 소원이던 그들의 라이브 공연을 보게 된 것이 꿈만 같아요.』

대부분 중·고교생인 이들 틈에는 국민학생들도 상당수 끼어있었다.

서울 강남의 C고교 2년 金모양(17)은 『오전 수업만 마친뒤 조퇴하고 3시간 전 이곳에 도착했다.』면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수업을 받는 것보다는 다시 보기 어려운 공연을 구경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金양은 3년전 친구의 권유로 뉴키즈의 앨범을 구입해 듣다 이들의 음악에 심취, 그 후부터 뉴키즈가 발표한 4장의 앨범은 물론 공연모습이 보고 싶어 비디오테이프 까지 빠짐없이 사들여 왔다고 털어놨다.

金양은 『친구 가운데 일부는 이들이 부르는 블루스곡만 들으면 눈물들을 펑펑 흘린다.』며 이번 공연 입장권을 사기 위해 며칠간 학교조차 나가지 않고 동분서주했던 그들에 비해 자신은 아주 조용한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뉴키즈의 대형사진을 말아 손에 쥔 청바지 차림의 金양은 『뉴키즈가 내 한한 16일 공항에 마중을 가 핸섬한 얼굴을 가까이서 본 순간 까무리칠 것 같았다.』며 『어른들은 왜 청소년들의 기분은 알아주지 않고 야단만 치는지 모르겠다』고 입술을 깨물기도 했다.

『60년대 당시 젊은이들이 비틀즈에 열광했고 20여년 전 클리프 리처드가 이화여대에서 공연했을 때 지금의 어머니들도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역시 두루마리 사진을 손에 든 같은 학교 李모양(16)은 노골적으로 기성세대에 불만을 터뜨렸다.

李양은 『어른들의 나무라는 태도는 위선』이라며 『우리는 솔직하게 좋은 것을 즐기고 싶은 것은 미워한다』고 말했다.

金양과 李양이 서 있던 진 행렬은 1시간 30분쯤 뒤 공연장 안으로 사라졌고 그로부터 20분쯤 뒤 무대 바로 앞의 관객들이 다른 극성 관객들에게 짓밟혀 50여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e. 초·중·고등학생들을 속이거나, 사행심을 고취시켜서 돈을 벌려는 부

도덕하고, 비교육적인 업주나 사업가들이 많다. 이들은 자기의 이기적 욕심 하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셈이다. 국교생의 사행심리를 조장하는 오락기구를 팔려는 업자들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

최근 국민학생들 사이에 부동산투기나 주식투자, 카지노게임 등을 통해 일확천금을 하거나 억만장자가 되는 것을 겨루는 각종 사행성 놀이가 성행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부(富)의 가치를 왜곡시키고 은연중에 투기심리를 심어가고 있다. 이를 사행성 놀이기구업자는 대부분 계산능력 향상과 지능개발을 위한 아이디어게임이라는 선전을 걸들여 적극적인 판촉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민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억만장자게임」의 경우 2명 이상이 말판과 주사위를 이용, 1천만원의 기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맨 먼저 증식시킬 경우 승자가 된다.

이 게임에서는 돈을 늘리는 방법으로 금광발견이나 카지노 도박, 땅투기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 게임판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M기획에서는 「억만장자나 파산이냐, 주사위 하나로 운명이 바뀐다」는 비교육적 선전문구까지 놀이기구에 써 넣고 있다.

『6세 이상에서 성인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K산업의 카지노게임」 기구는 「룰렛(게임기)」「덜러」「칩」등이 성인용 카지노와 똑같이 만들어져 있으며 1~36번의 번호에 자신의 「칩」을 걸어 번호가 맞으면 최고 36배의 배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

가족용 오락게임이라는 K사의 「기업왕 게임」은 1인당 자본금 1백만원으로 시작, 부동산투기나 주식투자, 주택복권추첨 등을 통해 일확천금을 하거나 회사를 소유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도록 한 것.

다른 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기업왕 게임」은 골프장과 콘도, 경마등의 투기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 3개 이상의 회사를 소유하거나 예금과 현금을 합해 2백 50만원을 모으면 「기업왕」이 된다.

2~3년전부터 시중에 나들기 시작한 이 같은 놀이기구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이미 개발된 놀이기구를 무분별하게 본딴 것으로 서울시내 각 국민학교 앞 문방구점의 경우 하루 평균 25~50여개씩이나 팔려나가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놀이의 성행에 대해 일선 국민학교 교사들은 『어린이들이 건강한 노동과 밤의 대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기 전에 한탕주의와 투기심리에 먼저 젖어들게 하는 것은 우려할만한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f. 학교의 학생들이 흡연을 권장하고 유혹하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어서, 청소년의 발달시기에 특히 해로운 건강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자 고교생의 50.5%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흡연 경험자는 72.4%에 이른다. 중학교 1년생의 흡연 경험

율이 14.2%나 된다. 이와 같은 흡연 통계는 미국(37.3%)보다 훨씬 높다. 왜 이들이 이토록 높은 흡연율을 기록해야 하는가? 기성세대의 교육적 지도는 도대체 어딜 갖는가?

이상에서 도덕교육과 관련된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선 그 개념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학교 상황에서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고, 마지막으로 학교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행동을 비도덕, 비교육적으로 인도해 가는 요인들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 글은 이상의 1, 2, 3장을 마치면서, 그들의 논의를 마감하는 대책 즉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분야에서의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 IV. 도덕성 회복을 위한 교육분야에서의 대책

교육분야에서 어떤 일을 함으로써 도덕성의 회복이 가능할까? 앞의 2, 3장에 걸쳐서 도덕의 의미와 회복하고 극복해야 할 비도덕과 부도덕의 문제를 비교적 소상하게 살펴보았다. 이제 이 장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대책은 크게 네가지 방향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교육 속의 개인을 도덕적으로 각성, 세련화, 성숙시키는 대책이며, 둘째는 교육 속의 집단간의 긴장과 갈등을 성숙하게, 세련되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다. 세째는 초·중·고등학교의 공식적인 도덕교육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대책이고, 네째는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도덕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다섯째는 학교의 학생들을 비도덕, 비인간화 시키는 학교와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는 생태계 자체를 도덕화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이 각각에 대한 대책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교육속의 개인의 도덕화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재단측 인사,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 속의 개인이라는 점과, 이들의 잘못되었거나, 미성숙한 도덕적 품성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학생들은 본 논의에서 생략키로 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비록 비도덕적이라고는 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성숙되어야 할 대상들인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도덕적 대책은 도덕교육 활

성화 대책에서 논의될 것이다.

재단측 인사들의 비도덕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엄정한 재단관리와 이 관리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기능회복이 유일한 대책이다. 아울러 재단활동이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다. 재단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일부 재단측 핵심인사만이 소유하게 되면,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그만큼 커진다.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비리는 세청 교주측의 강요에 의한 비리가 많다. 따라서 교주라는 개념이 무색할 만큼, 학교의 운영과 재산의 관리가 공개리에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학교의 기타 구성원 예컨대 교수, 교사, 행정직원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재단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해외로 도피하고, 그 덕분에 학교의 교직원들은 봉급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가능한 까닭은 사학재단이 그만큼 비공개리에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완벽한 공개와 더불어, 교육부에 의한 엄정한 감사만이 재단의 탈선과 비도덕적 경향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 교사, 교직에 의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제자를 성폭행하는 따위의 파렴치 행위를 한 교육자는 더 이상 교단에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사건이 나기 이전에 확인해 낼 길은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설사 그것이 국민학교나 유치원이라고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의 1:1의 면담이나 활동을 할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원칙이 생겨나야 한다. 특히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개된 장소의 활용 원칙이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인지되어야 한다. 교사에 대한 촌지문제도 그렇다.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전통이다. 따라서 금지를 하기보다는 몇 가지 정해진 원칙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① 결코 현금을 직접 받지 않는다. ②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물건은 받을 수 있되, 만원 이상의 값을 초과하는 물건이어서는 안된다. ③ 학부모와 교사의 만남은 언제나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학부모 면담일지에 기재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이 기록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런 원칙 내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만난다면, 그것은 큰 사회적 오해가 없이도 가능할 것이다. 물론 교사의 학생에 대한 “편애”나 “성적 봐주기” 등은 비도덕적 행위로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교직을 말

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학부모들에 대한 대책도 요구된다. 이들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 방문의 기회를 정례화해서 담임선생과 수시로 대화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자기자식에 한정된 관심을 보다 확대시켜서 학교에 대한 관심으로 격상시켜 주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자식만을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관행에 빠지를 박고, 친구들, 학급전체, 그리고 학교 전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기자식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도해 가야 한다. 그러자면 학교 당국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설정을 자주 소개하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런 기회가 학부모들로 하여금 시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회라 보여진다.

## 2. 교육속의 집단간의 갈등조정 능력의 고도화

교육속의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의 이득만을 위해서 고집을 부린다면, 결코 어느 집단도 소기한 바의 이득을 갖지 못한다. 자기 집단만의 이득이 아니라, 교육의 여러 집단구성원 모두에게 함께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하는게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 타협, 양보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 능력은 단지 그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되는게 아니다. 경쟁하던 버릇에 익숙해 있고,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경쟁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도 경쟁을 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은 별도로 길러지고 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런 능력은 일종의 사회유능성 (social competence), 혹은 사회적 능력 (social capability) 혹은 사회능력 (social ability)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능력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이끌어 낼 줄 아는 능력이다. 자기 고집만 부리다 모두가 망하는 것 보다는 나와 나의 집단을 포함한 전체가 함께 이득을 보는 쪽으로, 사태를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결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제일 첫째 조건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사고태도를 갖추는 것이다.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고, 느낄 줄 아는 태도인 바, 경쟁하여 이기고자 하면서도 상대방이 지금 현재 어떤 느낌과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추리에 볼 줄 아는 태도를 포함한다. 둘째 조건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세련되고 성숙한 정서 표현능력을 갖추는 일이

다.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금방 우락부락해지고, 성질을 내는 태도 보다는, 그런 감정을 통제하고 자제하면서 일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데 더 신경쓸 줄 알아야 한다. 밤길에 호랑이를 만나서 무섭게 떨고 풀짝 못하는 사람보다, 도망칠 합리적 궁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집단끼리의 갈등 상황에서 화만 내고,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것 보다는 실질적 해결을 합리적으로 강구해내는 일이 중요한 법이다. 교사, 학부모, 정부의 행정가, 학생, 재단측 인사들이 모여 상반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연습과 훈련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이다. 구체적인 워크샵(work shop)을 통해서 이러한 갈등 조정능력은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재야 학부모 단체, 전교조 등의 교사단체, 정부의 행정 관료, 재단측 인사 등이 모여서 모의 상황을 설정한 후, 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이제 실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도덕 교육의 효율화

현행의 도덕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네가지 조치가 요구된다. 첫째는 도덕교육에 대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도덕과 국민윤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성품의 형성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교육학적 이해가 깊어야 한다. 단지 윤리학이나 정치학, 한국학에 조예 깊다는 것이 도덕교사의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도덕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도덕적 품성을 갖추도록 교수방법에 해박한 사람이어야 한다. 철학자, 윤리학자, 교육학자가 아니라… 둘째 조건은 도덕시간이 최소한 주당 4~5시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위주의 수업이 되고, 체험위주의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나절의 시간이 요구된다. 주당 2시간은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며, 더욱이 체험위주의 수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세째 조건은 교과서의 자율화이다. 즉 현행처럼 국정으로 하지 말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도덕, 윤리책을 지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좋은 도덕책은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 진다. 현재의 도덕, 윤리교과서의 낙후성은 바로 이것을 국정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이다.

네째 조건은 도덕교육의 토론회를 위해서는 학교문화, 특히 잠재적 교육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 절에서 더욱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 4. 교육 유해 환경의 제거와 도덕화

학생들을 사회의 성인중심 문화로부터 격리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해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한다. 엄정한 법의 집행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유해업소들의 자율규제가 중요하다. 유해업소의 주인들(극장, 문방구, 오락실, 단화가게, 비디오가게, 롤라스케이트장)을 초청하고, 이들에게 도덕적 규제를 활성화시킬 것을 요청해야 한다. 문용린(1992)은 학부 모와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사회도덕화의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강남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천해 보인 바 있다. 이른바 “황색카드운동”이 그것이다. 그는 문방구점 주인들에게 “제 2의 도덕교사”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이들이 각자 자기 가게 안에서 줄서기, 떠들지 않기, 침 안뱉기, 서로 인사하기, 서로 품 안 때리기 등을 아이들이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고, 안 지킬 경우 “노랑카드”를 내보이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율규제는 아마도 비도덕화 되어 가는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도덕화시킬 유일한 대안인지도 모른다.

#### 5. 잠재적 교육과정의 활성화 : 그 필요성

학교내부에 존재하는 문화를 변형시켜서 학생을 도덕화시키는 힘을 갖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 즉 학생들은 학교라는 삶의 장을 통해서 친구 사귀는 법, 교사에 대한 태도, 대인관계 방법, 이 세상에 대한 태도 등을 습득한다. 현재의 잠재적 과정은 비도덕과 부도덕화의 방향으로 특징지워지고 있다. 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변혁하여, 오히려 도덕화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 브론fen부레너(U. Bronfenbreuner)는 미국의 대다수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 특히 친구관계가 비도덕적이고, 비행적 문화 특성을 갖는 데 비해서, 소련 학교의 그것은 도덕적이고 권사회적(prosocial)이라고 언급한 바 있듯이,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하기에 따라서는 긍정적 풍토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긍정적 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학교문화를 도덕적이게끔 변화시키는 일은 앞에 열거한 4가지 대책을 모두 포함한다. 결국 학교라는 삶의 장(場) 속에 교사, 재단, 교장, 교감, 학부모, 학생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 즉 학교문화를 도덕화 시키는 일은 교육구성원 모

두에게 큰 압력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속의 개인들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은 어항 속의 물이라고 하면, 교사, 재단측 인사, 학부모, 학생, 교장, 교감은 그속에 뛰노는 고기들과 같다. 결국 물이 바뀌면 그속에 노는 고기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와같이, 잠재적 교육과정을 도덕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교육분야의 도덕성 회복의 가장 중차대한 영역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글 전체의 결론으로 삼아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 V. 결론 : 잠재적 교육과정의 활성화

교육계와 학교 자체를 도덕화 시키고, 학교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분업의 무 즉, 도덕적 인간을 육성하는 일을 제대로 해내려면 IV장에 기술한 모든 대책들이 추진 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계와 학교내에 존재하는 문화적 특징, 즉 잠재적 교육과정을 혁신시키고, 도덕적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작업은 결국 교육 분야에서의 도덕성 회복의 핵심이다. 따라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에 대신코자 한다.

### 1. 세가지 모형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학교문화의 혁신을 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여하히 다루어야 할 것인가? 대체로 세가지 모형이 있을 수 있다(Reimer, 1989 : 7-32).

첫째는 섬머힐에서 예시되는 니일(Neill)식 모형이다. 니일은 꽉 짜여진 수업시간표, 딱강한 교사들의 권위,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배우도록 강요된 교과의 내용 등으로 구성되는 표면적 교육과정과 그런 교육체제 속에서는 불만과 스트레스, 적대감과 비관을 경험하고 인간성을 상실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표면적 교육과정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즉 학생들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예컨대 수업시간에도 마음이 내키면 언제고 빠질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사실상의 표면적 교육과정의 실체를 학교의 고유한 기능 밖으로 몰아낸다. 이른바 그는 학교에 “자유의 교육과정”(a Curriculum of freedom)을 도

입하여 학생들이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으면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니일식 모형의 특징은 잠재적 교육과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표면적 교육과정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며, 이 조정이 원리를 학교에서 일체의 기준하는 권위를 불식시키고, 그 대신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니일식 모델은 대단히 급진적이다. 기존의 학교 제도가 기성세대의 문화적 유산을 기성세대의 권위(교사 등)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시키는 것으로 굳어져 왔는데, 이 고정관념을 깨고, 오히려 학생의 자유를 전제로 학교제도를 재구성, 재개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니일식 모형은 “파연 학교에서 기성세대(즉, 교사)들의 교육적 권리(예컨대, 교육내용과 목표의 설정, 싫어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는 교육적 의무론 등)를 배제해도 되고, 실제로 배제할 수가 있는가”하는 근원적 물음에 봉착해 있다.

그래서 교육에서 기성세대의 미성년 과학습자에 대한 교육적 권리는 배제되어서도 안되고, 또 배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활성화시키려는 시도가 생겨난다.

두번째로 제시한 모형이 바로 그것이다. 이 모형은 듀르詈식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 표면적 교육과정이 성과를 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니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다님으로써 각종 불평, 불만,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이를 극도로 내부속에 억압하게 되면 올바른 정서와 인격을 갖춘 인간이 되지 못 하므로,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유”를 최대로 허용하여 “심리적 억압”을 해소시키는 것이 도덕교육상 좋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 듀르詈식 모형에서는 그런 자유를 학생에게 허용해서 일어지는 최종의 결과는 “사회적 도덕의 혼란”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도덕”을 가르치고, 이에 걸맞는 행동을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표면적 교육과정의 의도는 학교에 형성되어 있는 잠재적 교육과정 상의 집단분위기(학교에서는 교실과 학교분위기)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더 잘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집단압력과 집단시기 등의 집단역동(group dynamics)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생들을

개인수준에서 교육한다기 보다, 학급과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대우하고 가르치자는 것이다.

이 듀르谮식의 모형은 표면적 교육과정을 위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수단 시한다.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표면적 교육과정에 긍정적으로 기능해야 교육효과가 크며,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에 대한 통제와 조작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아울러 이런 전제와 더불어 이 모형은 표면적 교육과정을 당연히 “좋고 바른 것”으로 간주해야 하는 관행을 몰고 다닌다. 표면적 교육과정 자체의 성격과 의도에 대한 근원적 논의를 이 모델은 봉쇄시키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 모델은 예컨대, 사회주의 교육에서 일찍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표면적 교육과정에서 “불의(不義)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고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이 메세지가 교실과 학교에서 집단압력의 힘으로 실천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들은 “불의를 저지른 아버지”를 고발하는 소련 영웅들을 잠재적 교육과정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 때, “아버지를 고발하는 자식”을 교육에서 격려하고 고수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교육적 판단과 논의는 이 사회주의 교육 속에서는 봉쇄한다.

세번째는 콜버그식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정의의 교육과정 (curriculum of justice)으로 전환시키려 한다. 표면적 교육과정을 와해시키거나(니일식 모형), 표면적 과정에 잠재적 과정을 종속, 수단화하거나(듀르谮식 모형) 하지 않고, 잠재적 교육과정 속에 내재된 집단성격과 다이나믹(crowds), 상벌체계(praise), 그리고 힘의 배분(power)을 그냥 방치시키지 말고 정의롭게(just) 운영되고 형성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삶을 “정의로운 공동체”(just community)로 변환시키자는 것이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실속의 삶을 정의롭게 꾸미는 것이 곧 그가 속한 학교를 정의롭게 하는 기본이고, 자기가 속한 학교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 곧 그가 장차 살아갈 사회를 정의롭게 꾸밀 줄 아는 근본이 된다. 작은 곳에서 정의(正義)의 삶을 체험하는 것이, 더 큰 사회를 정의롭게 꾸며야 한다는 강렬한 희망을 낳는 것이다. 콜버그의 입장은 라이머(Reimer, 1989)는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정의(正義)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정의롭게 취

급되어 보는 경험과 정의로운 행위를 실제로 해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콜버그는 교육적 민주주의(educational democracy)라고 부른 바 있다. 이런 학교교육체제 속에서는 학교 구성원 개인 개인이 모두 학교규칙의 제정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규칙의 적절성 여부는 구성원 전체에 대한 복지와 행복에의 기여도에 의해서 판단된다. 최선의 학습은 바로 실제로 해보는 것(learning by doing)이라고 한다면, 정의(正義)와 도덕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추상적인 말로 토론하면서 정의를 배울 뿐 아니라, 학교생활 속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이런저런 요구를 실제로 정의롭게 해 볼으로써도 정의를 배운다.」(p. 25).

이런 취지의 잠재적 교육과정 활성화는 실제로 콜버그와 그 동료들에 의해 실증적으로 실천된 바 있다. 마사추세트주의 Cluster School, 뉴욕주의 Scarsdale Alternative High School, 그리고 마사추세트주의 S.W.S가 그것이다(Power et al., 1989 : 1-6). 이들 학교에서 추진된 교육전략은 모두 “정의로운 사회”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이었다. 이 접근법은 학생들의 학교에서의 삶이 정의롭게, 즉 정의의 원리(principle of justice)에 따라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각과 무단결석자가 많아질 때, 학급회의나 학교 총학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참여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각과 무단결석자가 많아질 때, 학급회의나 학교 총학생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참여 민주주의적 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이 곧 학교 구성원(교사, 학생, 교직원 포함)들의 참여하에 민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민주주의적 학교운영을 통해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정의로운 공동체화가 점차로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콜버그는 확인해 냈다.

## 2. 콜버그식 모형의 적용 가능성

콜버그식 모형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학교 운영체제가 학교 단위로 충분히 독립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급기관(예컨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획일적 행정과 큰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매우 크다. 즉 상급기관의 일방적 간섭과 지시, 명령에 대한 학교단위의 자율적 판단 권한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학교 단위의

잠재적 교육과정 활성화는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콜버그식 모델의 적용도 큰 무리는 아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학칙대로의 삶”이 학내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잠재적 교육과정 활성화의 한 아이디어가 되리라고 본다.

현행대로의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 교사, 교직원, 교감, 교장 등의 학교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을 규제하되,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학칙을 수정, 보완케하고, 집행케 하자는 것이다. 지각, 결석자에 대한 벌칙에서부터 수학여행, 교내 체육대회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교과학습 활동은 제외)에 학생들의 참여 민주주의를 적용하고, 경험케 하자는 것이다.

법, 즉 학칙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잠재교육과정이 형성될 수만 있다면, 학과에서의 도덕교육은 아마도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학칙이 서야만, 학교 내에서 도덕이 제대로 지켜진다. 학칙을 어겨도, 큰 제재가 없을 때, 누가 도덕 따위를 지키겠는가? 학교에서 학칙을 지키는 경험과 연습이 사회에서 헌법과 법을 지키는 행위의 초석이다.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경험과 연습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콜버그는 도덕교육은 사회를 혁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도덕을 내세웠다가, 소크라테스가 진리의 삶을 살라고 젊은이들에게 도덕을 외쳤다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편견”을 없애자는 도덕을 외쳤다가 사형을 당했고, 암살을 당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도덕교육이다. 이런 도덕교육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외침으로 제대로 이룩되리라는 기대 자체가 잘못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바로 도덕교육을 효과적이게 할 힘을 가진다. 이 힘을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정의로운 공동체적 삶”이 잠재적 교육과정의 내용이게 하는 것이며, “공동체적 삶”的 본질은 법과 규칙(학교에서는 학칙)을 평등하고 공평하며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도덕교육을 위한 잠재적 교육과정 활성화의 방향이다.

### 참 고 문 헌

문용린

1988 『도리교육론』, 서울 : 갑을 출판사.

문용린

1992 『지역 사회의 참여를 통한 사회도덕화』, 서울 : 강남교육구청.

법무연수원

1992 『외국인 범죄통계』, 서울 : 법무연수원.

정동철

1990 『청소년들의 성문화 실태』, 서울 : YMCA.

Jackson, P.

1968 *Life in the Classroom*,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Reimer, J.

1989 "From Moral Education to Democratic Governance," in F.C. Power, A. Higgins, L. Kohlberg. *Lawrence Kohlberg'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Rest, J.

1983 "Morality," in K. Flavell and E.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III. N.Y.: John Wiley and Sons.